

## 중학생의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

신효식 · 김근화<sup>†</sup>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 신안팔금중학교

### Communication and Self-Esteem between Middle School Students and Their Parents

Shin Hyo Shick · Kim Geun Hwa<sup>†</sup>

Dept. Home Economics Educ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Teacher, Sinan Palgeum Middle School

#### Abstract

This study is designed to provide some basic materials for finding better ways to promote student-parent communication in order to elevate the sense of self-esteem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and to talk about the importance of communication between students and parents through looking at the current student-parent communication reality resulting from socio-demographic changes among male and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and analyzing some influences student-parent communication has on students' self-esteem.

To attain the aforementioned purpose, total 650 2nd grade and 3rd grade middle school students were asked to fill out the questionnaire. The schools that they are attending are 2 schools in Gwangju City and 2 schools in a township in Jeonnam. 617 students responded to the survey. In order to see the general characteristics and the distribution of major variables of the respondents, the data were used to produce frequency, percentile, standard deviation and correlation quotient, and t-test, one-way Anova,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echniques were put to use.

The results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student groups that have good relations with other students seemed to be more open and active in their communication with their mother and father. Female students and students in their 2nd grade had more open talking relations with their mothers than male students and students in their 3rd grade. Students had more open talking relations with their father when father's occupation is office worker.

In the difference of self-esteem that results from variables in communication between students and parents, a significant variance was presented in the level of the self-esteem of middle school students. When they had open communication with both parents, they had a high sense of self-esteem, and when their communication style was problematic, they had a low sense of self-esteem.

---

<sup>†</sup> Corresponding author : H.P : 018-640-1411 e-mail : smart-1024@hanmail.net

When they had better relations with other students, when they had more open communication styles with their mother, when they had better school records, when they felt more satisfaction with communication with their father, they showed a higher level of self-esteem.

**Key Words** : self-esteem, communication

## 1.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적 변화와 함께 정서적 긴장을 수반하게 되어 불안과 갈등을 느끼는 매우 혼란스런 시기로 정체감 위기(identity crisis)를 맞게 된다. 또한 사회적으로 소외된 느낌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기존 질서에 저항감을 갖게 하고, 가정이나 학교, 사회가 제시하는 규범을 거부하며 더 나아가 흡연, 음주 등과 같은 일탈된 행동에 빠져 들게 한다.

한 개인의 성격과 행동양식의 형성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모는 청소년 자녀의 조력자 또는 사랑의 대상자로서의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하며, 부모-자녀의 관계는 가장 기본적인, 친밀하며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인간 관계로 어떤 사회적 관계보다 모든 인간의 행동양식을 학습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 이러한 부모-자녀 관계의 상호작용은 의사소통을 통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받으며, 그 속에 내포된 의미와 행동양식을 내면화하여 발달시켜 나가기 때문에 부모의 대화하는 방식이나 태도, 내용 등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Thomas(1977)는 가족 내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를 강화시키기도 하고, 약화시키기도 하는 매개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소통이라고 하며, 태도·생각·애정·사상 등을 전달해 주는 인간관계의 핵심적인 요소가 의사소통이라고 하였다.

가족 의사소통의 측면에서 의사소통은 '상징적 거래 과정' 즉 '의미들을 창조하고 공유하는 과정'으로 보고, 만일 의미를 상호 간에 공유하지 못할 때는 의사소통이 매우 어렵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들이 청소년 자녀들에게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 공감하면서 경청한다면 부모와 자녀의 의사소통이 증진될 수 있다고 하였다.(Galvin, Brommel; 1982).

이러한 견해를 종합해 볼 때, 가족내에서의 의사소통이란 "부모와 자녀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감정, 느낌, 생각, 태도 등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상호간의 공통적 이해를 도모하는 상호방향적 과정"(조은경, 1992)으로 정의 내릴 수 있다.

가정내의 의사소통교육은 학교교육과 함께 인간의 사회화 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가정생활을 통해 인간관계의 기초를 습득하고, 사물에 대한 태도, 습관, 가치관, 성격의 핵심이 되는 자아존중감 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김정희, 1987). 이는 의사소통이 가족 관계 속에서 가족간의 갈등문제 해결과 자녀의 사회화를 촉진시키는 방법으로서 의의를 찾아 볼 수 있다.

Duvall(1965)은 부모와 청소년간의 개방적인 의사소통은 감정을 정화하고 정신건강을 도와주며, 능동적 상호작용을 격려하고 개인에게 수용되고 이해된다는 느낌을 주는 이점을 가진다고 하였다. 이러한 의사소통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중요한 선행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권혜진, 1993; 신수정, 1994).

부모가 자녀에 대해 이중적 의사소통을 하거나, 자녀의 가치를 무시하는 부정적인 의사전달을 하게 될 때, 자녀는 자신을 가족 집단으로부터 분리해내지 못할 뿐 만 아니라, 자아존중감이 저하된 역기능적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한다(Stair, 1967).

자아존중감(self-esteem)은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여러 속성에 대한 평가적·감정적 태도를 의미한다(김희화, 1998).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은 자신을 수용, 존중하고 자신을 좋아하며 스스로를 가치있는 인간으로 느끼는 것으로 자신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말한다(Rosenberg, 1985).

Coopersmith(1981)는 자녀의 자아존중감은 그의 가족적 경험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특히 부모자녀 관계를 강조했다. 그 중에서도 Rosenberg (1965)는 부모의 관심이 자녀의 자아존중감 발달에 가장 결정적 요인이라고 결론지었으며 Salter (1962)와 Mote(1967)도 부모의 지적 관심이 자녀의 자아존중감 발달에 가장 중요하다고 결론에 동의하였다.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타인 즉, 부모나 교사, 친구들의 태도에 영향을 받으며 (Coopersmith, 1967), 사회경제적 계층, 민족, 성별, 가족, 신체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들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였다.(김양숙, 1995)

이상으로 볼 때 자아존중감은 부모와의 상호관계를 통해 형성되며 부모와의 관계가 자아존중감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한편, 자아존중감은 자신을 가치있는 존재로 지각하고 자신에 대한 유능감과 신뢰감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인성특성으로, 낮은 자아존중감은 한 개인이 원만한 사회적 관계와 상호작용을 이루는 것을 방해하는 행동과 신념의 한 부분이 된다(장휘숙, 1995). 그 뿐 아니라 낮은 자아존중감은 개인으로 하여금 대인관계와 사회적 상호작용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게 하므로써 타인들과 사회적 관계에서 제대로 적응하기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김희화김경연, 1998).

국내의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김양숙(1995)은 부모-자녀 개방형 의사소통과 자녀의 자아존중감은 정적 상관이 있으며 부모 문제형 의사소통과 자녀의 자아존중감은 부적 상관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김희화(1998)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환경적인 변인으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의 증가에도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고 있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김경원, 1998; 이경주, 신효식, 1990; 최인경, 2001)는 부모 자녀간의 개방적인 의사소통은 청소년 자녀의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정적 상관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진용(1990)이 어머니-자녀 의사소통과 청소년

의 자아존중감과 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어머니의 의사소통 유형이 심화촉진적일 때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의사소통 시간을 많이 가질수록 자아존중감이 가장 높다고 하였고, 권은정(1996)은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매우 만족하다"일 때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가장 높다고 하였다. 이러한 여러 연구 결과는 부모와 청소년 자녀간의 개방적인 의사소통과 의사소통 시간이 많고, 만족도가 높을 때, 감정을 정화시키고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는 반면, 부모-자녀간 역기능적인 의사소통과 의사소통 부족은 부모-자녀간 갈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을 준다. 부모의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은 자녀로 하여금 자신이 수용된다는 느낌을 주게 되므로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자녀일수록 자아존중감은 높아진다(Demo, Sall, Savin-Williams, 1987).

이와 같이 부모-자녀간 상호작용인 의사소통 유형에 따라 자아존중감이 관련이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은 가족기능 수행에 중요한 요인으로, 지금까지 국내외 연구에서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가 있다. 따라서 자아 존중감의 형성은 전 생애에 걸쳐 이루어야 할 발달 과업이지만, 청소년기의 자아 존중감 확립은 일생의 세우는데 핵심이 되므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청소년들은 여러 가지 신체적·심리적 변화를 경험하면서 정체감 혼미 상태를 경험할 수 있으므로, 자아 존중감 확립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중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 여겨진다.

본 연구는 남녀 중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을 살펴보고,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중학생의 자아존중감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부모-자녀간 의사소통방안을 모색 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 2.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본 연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인구학적 변인,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변인에 따라 자아존중감에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분석하고, 자아존중감에 대한 이들 요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연구문제

첫째,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행태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둘째,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변인에 따라 자아존중감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셋째, 사회인구학적변인과 의사소통변인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 2) 연구방법

#### (1) 조사 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중학교 2개교와 전라남도 읍 지역에 소재한 중학교 2개교 총 4개교의 2, 3학년 650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본 조사를 수행하기에 앞서 2002년 7월 2일 Y중학교 5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보완이 필요한 문항을 수정하여 본 조사용 설문지를 작성한 후 2002년 7월 15일부터 2002년 7월 20일까지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650부를 배부하여 그 중 635부(회수율 97.7%)를 회수하였으며, 이중 불성실한 응답 자료를 제외한 617부를 분석자료로 이용하였다.

#### (2) 조사도구

본 연구는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작성한 설문지를 사용하였고, 내용 타당도는 관련분야의 전공 교수와 대학원생들에게 검증받았으며, 신뢰도는 내적 일관성 계수를 산출하여 검증하였다.

#### ① 사회인구학적 변인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조사하기 위한 설문지는 학생의 성별, 학년, 거주지, 출생순위, 부모연령, 부모학

력, 부모 직업(전문직, 관리직, 사무직, 생산판매서비스, 무직, 기타), 가족 형태, 성적, 교우관계에 관한 10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 ②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Barnes와 Olson(1985)이 제작한 부모와 청소년기 자녀간의 의사소통 검사 PAC(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 중 청소년 자녀용 설문지(Adolescent Form)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추어 민하영(1991)이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는 20개 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두 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하위 척도인 개방적 의사소통(open family communication)은 부모-자녀간의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상호작용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 하위요인인 문제형 의사소통 유형(problem in family communication)은 세대간의 의사소통에 어느 정도 어려움과 장애가 있는가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의사소통에서의 부정적인 측면을 측정한다.

각 하위 척도별로 개방형 10항목과 문제형 10항목으로 구성되어 총 20문항이며 아버지와의 의사소통과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을 따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개방적 의사소통 문항(1, 3, 5, 7, 9, 10, 13, 15, 17, 19번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 “매우 그렇다” 5점을 주고 문제형 의사소통 문항(2, 4, 6, 8, 11, 12, 14, 16, 18, 20번 문항)은 역산하여 5점 Likert 식으로 계산하여 합산한다. 따라서 각 개인이 하위척도별로 얻을 수 있는 점수범위는 20점에서 100점이다.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의 유형은 부-자녀간 의사소통과 모-자녀간 의사소통으로 구분하여 전체 평균값보다 높으면 개방형 의사소통으로 평균보다 낮으면 문제형 의사소통으로 구분하였다. 의사소통 시간과 의사소통 만족도는 각각 한 개의 문항으로 조사하였다.

#### ③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검사 도구는 Harter(1985)의 도구를 한국 아동 및 청소년용으로 개발한 김희화(1998)의 질문지를 수정하여 15개 문항으로 만들어 사용하였다. 도구의 측정방법은 5점 평점 척도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의 5점을 주어 합산한 총점을 개인의 원점수로 사용하였

고, 점수 범위는 15~7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 신뢰도는 아버지와 의 의사소통 문항의 경우 .86,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86, 자아존중감 .90으로 각각 나타났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Program Package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환경관련 변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 및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각 척도의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Cronbach's  $\alpha$  값을 산출하였다.

② 가정의 환경 변인에 따른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와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수행하였고, 추후검증으로 Duncan의 다중범위검증(Multiple Range Test)을 실시하였다.

③ 가정 환경과 의사소통변인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 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II. 결과 해석 및 논의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①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조사대상자의 특성을 조사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남학생이 47.0%, 여학생이 53.0%이고, 중학교 2학년은 51.6%, 중학교 3학년은 48.4%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은 도시와 농촌 지역이 각각 53.7%, 46.3%이고, 출생순위는 맏이가 43.4%, 중간이 18.3%, 막내가 35.4%, 외동이 2.9%순이었다. 부의 연령을 살펴보면 30대가 10.2%, 40대가 84.4%, 50대 이상이

5.4%이며, 모는 30대가 35.8%, 40대가 62.3%, 50대 이상이 1.9%로 부모 모두 40대가 가장 많았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아버지의 경우 고졸이 52.0%로 가장 높았고, 대학교졸 이상이 37.3%, 중졸이하가 10.7%이며, 어머니의 경우는 고졸이 69.6%이며, 대학교졸 이상은 16.3%, 중졸이하가 14.1%로 어머니의 학력이 아버지의 학력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직업에서 아버지는 생산·판매·서비스직이 40.3%로 가장 많았고, 사무직이 25.1%, 전문·기술직이 17.8%, 행정·관리직이 13.0%, 무직이 2.3% 순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는 주부가 전체 50.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판매·서비스직이 34.7%, 사무직이 8.4%, 전문직이 3.2%, 관리직이 2.3%순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형태는 대가족이 10.7%, 핵가족이 89.3%로 핵가족의 비중이 높았고, 성적은 18.0%가 상, 60.1%가 중, 21.9%가 하이며, 교우관계는 55.8%가 좋은 편이며 보통은 41.4%, 좋지 않은 편은 2.8%로 나타났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N= 617명)

변인	구분	N	%	변인	구분	N	%	
성별	남	290	47.0	부의 직업	전문직	110	17.8	
	여	327	53.0		관리직	80	13.0	
학년	2	318	51.6		사무직	155	25.1	
	3	299	48.4		판매·서비스직	248	40.3	
거주 지역	도시	330	53.7		무직	15	2.3	
	농촌	287	46.3		기타	9	1.5	
출생 순위	맏이	268	43.4		모의 직업	전문직	20	3.2
	중간	113	18.3			관리직	14	2.3
	막내	218	35.4			사무직	52	8.4
	외동	18	2.9			판매·서비스직	214	34.7
부 연령	31-39	63	10.2	무직		310	50.3	
	40-49	521	84.4	기타		7	1.1	
	50 이상	33	5.4	가족 형태		확대가족	66	10.7
모 연령	31-39	221	35.8			핵가족	551	89.3
	40-49	384	62.3			상	111	18.0
	5이상	12	1.9			중	371	60.1
부 학력	중졸	66	10.7	하	135	21.9		
	고졸	321	52.0	교우 관계	좋은편	344	55.8	
	대졸이상	230	37.3		보통	255	41.4	
모 학력	중졸	87	14.1		좋지 않다	18	2.8	
	고졸	429	69.6					
		대졸이상	101	16.3				

② 주당 평균 의사소통시간은 아버지와 30분 미만의 의사소통을 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전체 34.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분~1시간 미만이 20.9%, 1~2시간이 12.5%, 거의 하지 않는 학생이 19.1%, 2시간 이상이 13.3% 순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은 30분 미만이 30.8%로 가장 많았으며, 30분~1시간 미만이 21.7%, 2시간 이상이 21.9%, 1~2시간 미만이 16.2%, 거의 하지 않는다 9.4% 순으로 나타났으며,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③ 부모와의 의사소통 만족도는 아버지와 의사소통 만족은 36.2%, 보통은 52.2%, 불만족은 11.6%인데 반하여,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만족은 50.2%, 보통 42.3%, 불만족 7.5%로 나타났다. 대체로 어머니보다 아버지와 의사소통시간이 부족하고 아버지와 의사소통 만족도도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만족도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주당 평균 의사소통 시간과 만족도 (N= 617명)

변인	구분	N	%
부와 의사소통 시간	거의하지않는다	118	19.1
	30분 미만	211	34.2
	30분~1시간	129	20.9
	1~2시간	77	12.5
	2시간이상	82	13.3
모와 의사소통 시간	거의하지않는다	58	9.4
	30분 미만	190	30.8
	30분~1시간	134	21.7
	1~2시간	100	16.2
부와 의사소통 만족도	2시간이상	135	21.9
	만족	222	36.2
	보통	320	52.2
모와 의사소통 만족도	불만족	71	11.6
	만족	306	50.2
	보통	258	42.3
	불만족	46	7.5

## 2.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의 차이

### 1)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 차이

성별, 학년, 거주지에 관해서는 t-test를 실시하였고, 출생순위, 부모 연령, 부모 학력, 부모 직업, 가족 형태, 생활 정도, 성적, 교우 관계에 따른 부모-자녀간 차이 검증을 위해 one-way ANOVA를 실시하였다.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부모-자녀간 개방적 의사소통의 차이는 교우관계에 따라 부와 모 모두의 의사소통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부의 직업에 따라 부와의 의사소통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성별과 학년에 따라서는 모와의 의사소통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교우관계에 따른 부, 모와의 의사소통은 부와 모 모두 유의한 차이( $p < .001$ )를 보이고 있으며, 교우관계가 좋은 집단이 좋지 않는 집단보다 부와 모 모두 더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우관계가 좋은 집단이 부와 모 모두 의사소통 평균 점수가 높다는 선행연구(김성윤, 2001)와 일치한 결과로 교우관계가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의 직업에 따라 부와의 의사소통에서 사무직인 경우 가장 개방적이었으며, 관리직, 전문직, 판매서비스직, 무직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부와의 의사소통은 남학생과 여학생의 평균은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모와의 의사소통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p < .05$ ),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녀관계의 의사소통이 모자관계의 의사소통보다 더 원활히 이루어진다는 선행연구(권보연, 2000; 신수정, 1994; 이희자, 1998; 조은경, 1992; 최인경 2001)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서 감수성이 풍부한 청소년 시기에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어머니에 대해 동성으로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학년에 따른 부, 모와의 의사소통 유형에 대하여 살펴보면, 모와의 의사소통에 있어 2, 3학년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p < .05$ ). 2학년이 3학년 보다

모와의 의사소통이 더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3학년이 2학년에 비해 모와의 의사소통에 있어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청소년기에 자아정체성 확립과 독립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현상으로 해석해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민하영(1990)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 부모-자녀 상호간 의사소통에 공통적인 이해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부모가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면서 개방적이고 지지적인 의사소통을 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만이 세대 차이를 좁혀 주고, 갈등을 감소시키며, 청소년의 원만한 발달과 바람직한 사회 적응을 유도할 수 있다.

## 2)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시간과 만족도

### ①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의사소통 시간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시간은 거주지, 부모학력, 부의 직업, 성적, 교우관계에 따라 부와 모 모두의 의사소통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모의 연령과 가족형태에 따라서는 모와의 의사소통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시와 농촌간의 거주지에 따른 부모와의 의사소통 시간은 부( $p < .01$ )와 모( $p < .001$ )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농촌보다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부와 모 모두 의사소통 시간이 많았다.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부모와의 의사소통 시간은 부의 학력에 따라 부( $p < .01$ )와 모( $p < .001$ )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모의 학력에 따라서도 부( $p < .05$ )와 모( $p < .01$ )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부모의 학력이 대졸 이상인 집단이 고졸 이하인 경우 보다 부모 모두와의 의사소통 시간이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학력이 높을 때 의사소통 시간이 많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김성윤, 2001; 이선자·정명숙, 1979; 최인경, 2001)

부모 직업에 따른 부모와의 의사소통 시간은 부의

직업에 따른 의사소통 시간은 부( $p < .05$ )와 모( $p < .05$ )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부의 직업이 무직, 관리직, 전문직, 사무직, 판매·서비스직 순으로 부와의 의사소통 시간이 많았고, 모와의 의사소통 시간은 부의 직업이 전문직, 사무직, 관리직, 판매·서비스직, 무직 순으로 의사소통 시간이 많았다.

자녀 성적에 따른 부모와의 의사소통 시간은 부( $p < .001$ )와 모( $p < .01$ )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성적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부와 모 모두 의사소통 시간이 많았다.

교우관계에 따른 부모와의 의사소통 시간은 부( $p < .001$ )와 모( $p < .001$ )의 의사소통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교우관계가 좋은 집단이 교우관계가 좋지 않은 집단보다 부와 모 모두 의사소통 시간이 많았다.

가족형태에 따라 부와의 의사소통 시간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모( $p < .001$ )와의 의사소통 시간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 $p < .001$ ) 핵가족일 때 모와의 의사소통 시간은 많았다. 성별, 학년, 출생순위, 부모연령에 따른 부, 모와의 의사소통 시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시간이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시간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시간을 늘리고, 개방적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부모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 ②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만족도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우관계에 따라 부와 모 모두의 의사소통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거주지, 부모학력, 부의 직업, 가족형태, 성적에 따라 모와의 의사소통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교우관계에 따른 부, 모와의 의사소통 만족도는 부( $p < .001$ )와 모( $p < .001$ ) 모두의 의사소통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교우관계가 좋지 않은 집단이 교우관계가 좋은 집단보다 부와 모 모두 의사소통 만족도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성적과 교우관계가 좋지 않아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중요시하고, 부모-자녀간에 의사소

통을 통해 학습과 교우관계의 문제점을 찾고, 문제의 해결 방법을 함께 모색하므로써 의사소통 만족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도시와 농촌간의 거주지에 따른 의사소통 만족도는 모( $p < .01$ )와의 의사소통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도시보다는 농촌에 거주하는 경우 모와의 의사소통 만족도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농촌에 거주하는 학생의 의사소통 시간은 짧지만 의사소통시 부모 자녀간의 상호작용에서 억압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실, 감정을 표현하며 친밀도가 높기 때문에 의사소통 만족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부모학력이 높을 때 모와의 의사소통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어머니와 청소년기 자녀와의 의사소통에서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전반적인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만족한다는 오연옥(1987)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부모의 교육정도가 청소년 자녀와 부모와의 의사소통 정도에 영향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 직업에 따른 부, 모와의 의사소통 만족도는 부의 직업에 따라 모와의 의사소통 만족도에서만 유의한 차이( $p < .01$ )를 보였다. 부의 직업이 무직이 가장 높았고, 판매·서비스직, 관리직, 사무직, 전문직 순으로 모와의 의사소통 만족도가 높았다.

가족형태에 따른 의사소통만족도는 모와의 의사소통에서만 유의한 차이( $p < .05$ )가 나타났는데, 확대가족일 때 모와의 의사소통에서 만족도가 높았다. 이는 가족간에 갈등 해결이 가족간의 위계 질서와 수용으로 풀어나가기 때문에 의사소통 만족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자녀 성적에 따른 부, 모와의 의사소통 만족도는 모와의 의사소통에서만 유의한 차이( $p < .05$ )를 보였고, 성적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보다 부와 모 모두 의사소통 만족도가 높았다. 성별에 따른 부, 모와의 의사소통 만족도는 남, 여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학년에 따른 부, 모와의 의사소통 만족도는 학년에 유의한 차는 없었으나 2학년이 3학년보다 부와의 의사소통 만족도가 높았고, 학년에 상관없이 부와의 의사소통만족도가 모와의 의사소통 만족도 보다 높았다.

출생순위, 부모 연령, 부모와의 의사소통 만족도

는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청소년기 자녀에게 자신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마련해주고 공감하면서 경청해 준다면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은 증진될 수 있으며(Calvin & Brommel, 1982), 청소년의 정서적·행동적 문제를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표 3> 사회인구학적변인에 따른 의사소통 만족도

변인	구분	부				모			
		N	M	SD	D	N	M	SD	D
성별	남	289	1.72	.64		287	1.56	.63	
	여	324	1.78	.65		323	1.58	.63	
	t				-1.23				-.34
학년	2	314	1.71	.66		314	1.53	.63	
	3	298	1.80	.63		295	1.62	.63	
	t				-1.82				-1.67
거주지	도시	330	1.75	.65		330	1.75	.65	
	농촌	281	1.77	.64		281	1.77	.64	
	t				-.44				-2.06*
출생순위	말이	267	1.76	.67		267	1.54	.64	
	중간	110	1.82	.65		110	1.70	.64	
	막내	218	1.72	.62		215	1.54	.60	
	외동	18	1.61	.61		18	1.72	.67	
	F			.87				2.30	
부연령	31~39	63	1.76	.56		60	1.68	.62	
	40~49	517	1.75	.66		517	1.56	.63	
	50 이상	33	1.73	.63		33	1.55	.56	
	F			.03				1.02	
모연령	31~39	220	1.75	.62		220	1.63	.62	
	40~49	381	1.76	.66		378	1.55	.63	
	50 이상	12	1.50	.67		12	1.33	.49	
	F			.97				1.94	
부학력	중졸	66	1.74	.67		66	1.47	.60	
	고졸	319	1.76	.63		318	1.62	.63	
	대졸이상	228	1.77	.65		226	1.70	.68	
	F			.08				5.04**	
모학력	중졸	86	1.67	.64		86	1.45	.58	
	고졸	427	1.76	.65		438	1.58	.64	
	대졸이상	99	1.84	.63		96	1.67	.62	
	F			1.62				3.08*	
부직업	전문직	109	1.67	.67		108	1.42	.60	AB
	관리직	79	1.82	.62		78	1.62	.63	A
	사무직	155	1.73	.62		154	1.56	.60	A
	판매서비스	246	1.79	.65		247	1.04	.64	A
	무직	14	1.79	.89		13	1.69	.85	A
	기타	9	1.44	.53		9	1.11	.33	B
	F			1.19				3.15**	



<표 계속>

변인	구분	부				모			
		N	M	SD	D	N	M	SD	D
모 직업	전문직	19	1.79	.63		20	1.60	.68	
	관리직	14	1.86	.77		11	1.73	.79	
	사무직	52	1.58	.54		52	1.50	.54	
	판매	213	1.76	.66		213	1.62	.67	
	서비스	308	1.80	.65		308	1.55	.60	
	무직	7	1.71	.76		6	1.67	.82	
	기타								
	F	.92				.66			
가족 형태	대가족	63	1.78	.63		63	1.75	.67	
	핵가족	548	1.75	.65		545	1.55	.62	
	F	.32				2.35*			
성적	상	111	1.67	.65		109	1.46	.60	B
	중	367	1.77	.63		366	1.56	.60	B
	하	134	1.79	.68		134	1.70	.70	A
	F	1.29				4.72**			
교우 관계	좋음	342	1.66	.64	B	340	1.49	.60	B
	보통	253	1.86	.63	AB	253	1.67	.64	AB
	좋지않다	17	2.00	.71	A	17	1.82	.73	A
	F	8.27***				7.72***			

\* p<.05 \*\* p<.01 \*\*\* p<.001

### 3. 의사소통 변인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에 따라 자아존중감의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의사소통 유형, 주당 의사소통 시간, 의사소통 만족도를 가지고 일원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 과 같다.

자아존중감은 의사소통 변인(의사소통유형, 의사소통 시간, 의사소통 만족도)에 따라 부와 모 모두에서 자아존중감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 ① 의사소통유형에 따른 중학생의 자아존중감

의사소통유형에 따른 중학생의 자아존중감은 부(p<.001)와 모(p<.001)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에서 중학생의 자아존중감은 부와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때가 높고 문제형 의사소통때는 자아존중감이 낮게 나타났다. 모와의 의사소통에서도 마찬가지로 개방적인 의사소통형일 때가 자아존중감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김정희, 1987; 권혜진과 윤종희, 1993; 신호식과 이경주, 1990)에서 밝혀진 개방적 의사소통이 자아존중감과 정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보고와 일치한다.

이는 부모와의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의사소통이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시사해 주고 있으며, 더 나아가 부모-자녀간의 개방적이고 상호작용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자녀의 올바른 자아 형성에 도움을 주도록 해야 할 것이다.

#### ② 의사소통 시간에 따른 중학생의 자아존중감

중학생의 자아존중감은 의사소통 시간에 따라 부(p<.001)와 모(p<.001)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각 집단간의 차이는 부와의 의사소통 시간이 30분 이상 일 때 가장 높았고, 30분 미만, 거의하지 않는다 순으로 중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 모와의 의사소통 시간에 따른 자아존중감도 2시간 이상일 때가 가장 높은 자아존중감을 보였다. 즉, 부모와의 의사소통에서 의사소통 시간이 많은 집단 순으로 중학생의 자아존중감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을 자주하고 상호작용을 할 기회가 많을 때 자아존중감의 총점이 높다는 결과는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시간이 자녀의 자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신수정, 1994)를 지지해 주고 있다.

의사소통은 의사소통 시간의 양과 개방적 의사소통이라는 질적인 측면에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의사소통 시간이 부족한 아버지라 하더라도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많이 하도록 교육함으로써 청소년 자녀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해야 한다.

#### ③ 의사소통의 만족도에 따른 자아존중감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만족도에 따른 자아존중감은 부(p<.001)와 모(p<.001)의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에서 부와의 의사소통에 만족하였을 때 자아존중감은 높게 나타났다. 또한 모와의 의사소통에서도 의사소통에 만족

하였을 때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의사소통 만족도가 높을 때 자아존중감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매우 만족하다”일 때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권은정(1996)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에게 자유롭고 솔직하게 의사 표현을하는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시간을 많이 가지며, 의사소통 만족도가 높아진다면, 중학생의 자아존중감은 긍정적으로 발달할 것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 자아존중감은 부정적으로 변화해갈 것이다.

<표 4> 의사소통변인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

변인	구분	부				모			
		N	M	SD	D	N	M	SD	D
의사소통 유형	문제형의 의사소통	316	46.71	10.80		328	47.05	11.07	
	개방형의 의사소통	301	54.22	9.81		289	54.15	9.60	
	t	-9.03***				-8.53***			
의사소통 시간	거의 하지 않는다.	118	45.46	10.75	C	58	45.43	11.52	D
	30분 미만	211	48.86	10.88	B	190	47.87	11.17	CD
	30-1시간	129	53.08	9.69	A	134	50.54	10.29	BC
	1-2시간	77	53.70	9.85	A	100	53.33	9.97	AB
	2시간 이상	82	53.98	11.30	A	135	53.67	10.33	A
	F	13.92***				10.92***			
의사소통 만족도	불만족	71	44.28	12.25	C	46	42.63	12.83	C
	보통	320	48.69	9.81	B	258	48.05	10.07	B
	만족	222	54.81	10.56	A	306	53.57	10.45	A
	F	36.65***				33.11***			

\*\*\* p<.001

#### 4.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의사소통

##### 변인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

중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변인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변인은 거주지, 부학력, 모학력, 부직업, 성적, 교우관계, 부와의 의사소통유형, 모와의 의사소통유형, 부와의 의사소통 시간, 모와의 의사소통 시간, 부와의 의사소통 만족도, 모와의 의사소통 만족도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인들을 토대로 회귀식을 구성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과정에서의 위반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잔차 분석(Residual Analysis)을 실시한 결과 DW 값이 1.867로 잔차간의 자기상관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회귀분석의 모델은 적절하였다.

독립변인(거주지, 부학력, 모학력, 부직업, 성적, 교우관계, 부와의 의사소통유형, 모와의 의사소통유형, 부와의 의사소통 시간, 모와의 의사소통 시간, 부와의 의사소통 만족도, 모와의 의사소통 만족도)들이 중학생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독립적인 영향력을 표준화된 회귀계수(β)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회귀분석 결과 중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교우관계(β=.26, p<.001), 성적(β=.18, p<.001), 모와의 의사소통(β=.17, p<.01), 부와의 의사소통(β=.12, p<.05), 부와의 의사소통 만족도(β=.11, p<.05) 순으로 나타났고, 이들의 설명력은 33%이었다.

즉, 교우관계가 좋을 수록, 성적이 좋을 수록, 부모와 의사소통이 개방적일 수록, 부와의 의사소통 만족도가 높을 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만족도가 높을 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녀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어머니 보다 아버지가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김양숙, 1995; 신수정, 1994; 심영현, 1981)와 일치한다.

또한 부모와 긍정적 의사소통을 하는 청소년이 높은 자아존중감을 지닌다는 Walkwe와 Green(1980)의 연구와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이 상관 있다는 강윤구(1999), 김희화(1998)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중학생 자녀의 긍정적인 자아존중감 형성을 위해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두가 자녀와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부모는 자녀와 보다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위해 관심 어린 대화나 같이할 수 있는 활동을 제안해 가면서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아버지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나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고 본다.

<표 5> 사회인구학적변인과 의사소통 변인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종속	독립 변인	비표준화된 회귀계수 (B)	표준화된 회귀계수 (β)
		자	교우관계
아	성적	3.20	.18***
	모와의 의사소통	.15	.17**
존	부와의 의사소통	.10	.12*
	부와의 의사소통 만족도	1.86	.11*
중	거주지	-.32	-.07
	부와의 의사소통시간	.47	.05
감	모와의 의사소통 시간	-.26	-.03
	모와의 의사소통 만족도	.48	.03
	모학력	.43	.02
F		23.98***	
R <sup>2</sup>		.33	
DW		1.867	

\*\* p<.01

\*\*\* p<.001

### III. 결 론

이상과 같은 결과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중학생 자녀는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와 더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부모와 더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남학생과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을 촉진하는 지도와 관심이 요구된다.

둘째, 학년이 낮은 집단이 부와 모 모두 의사소통 시간이 길고 의사소통 만족도가 높았고, 부모의 학력이 높을때 부와 모 모두 의사소통 시간과 의사소통 만족도가 높았다. 이것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부모와의 의사소통 시간이 줄어들고, 갈등이 증가하며 특히, 저학력의 부모인 경우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들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다.

셋째, 부모-자녀간에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할 때, 의사소통 시간이 많을 때, 의사소통 만족도가 높을 때 중학생 자녀의 자아존중감이 높았다. 따라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의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며, 의사소통의 양보다 개방적 의사소통이 중요하다.

넷째, 교우관계가 좋을 수록,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일 수록, 성적이 좋을 수록, 부모와의 의사소통 만족도가 높을 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았다. 이는 부모와의 긍정적인 의사소통이 중학생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으므로, 부모-자녀간의 개방적이고 상호작용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자녀의 올바른 자아 형성에 도움을 주도록 해야한다.

제한점으로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 전남 읍 소재 학교를 대상으로 표집하였으므로 연구 결과의 보편성 즉, 전국적인 확대 해석은 신중을 기해야 하며, 본 연구에 사용한 설문지는 표준화된 것이 아닌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여 중학생 수준에서 작성한 것으로 포괄적인 측정이 미흡하다.

본 연구는 중학생 자녀가 지각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만을 살펴보았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부모-자녀가 지각한 쌍방향적인 의사소통과 의사소통 내용에 따른 의사소통 만족도의 조사가 요구된다.

□ 투고일 : 2004년 2월 14일

### 참고문헌

- 강윤구(1999).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청소년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관계,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연·김희화(1998) 개인적 요인 및 환경적 요인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6(2), 47-60.
- 김남희(2000).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과 청소년의 자아정체 감에 관한 연구, 강릉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운(2001). 중학생의 자아개념유형과 부모-자녀의 의사소통유형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양숙(1995).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과 청소년의 자아존중 감 및 내외통제성과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옥(2001).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이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재현(1999).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자기 존중감 및 의사소통과의 관계,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화(1998),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발달과 환경변인 및 적응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노성향(1994).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와의 의사소통유형과 청소년의 부적응,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하영(1991). 청소년 비행 정도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가족의 응집 및 적응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은민(2000). 대학생활적응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 및 자아존중감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혜경(1990). 부모-자녀간 커뮤니케이션과 자녀의 효행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은경(1992). 부모·청소년자녀간의 대인거리·심리적거리·의사소통이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력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인경(2001).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에 따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